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회》

### 제 2편

#### 一. 세 분의 주인공 출현 후 일인출(一人出)

- 1) 삼신일체일인출 : 격암은비가
- 2) 삼위일체 ; 묵시록 3장 21절
- 3) 삼존불일체 [이자삼점(伊字三點)]

#### 一. 세 분의 주인공 출현 후 일인출

본 연재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다시 찾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회복하는 과정이 박태선 장로님의 전도관 역사(歷史)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줄거리를 잡고 있다.

독자들은 박태선 장로님의 신앙역사를 단지 흥미위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역사에 숨겨 있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읽어야 한다.

#### 1) 삼신일체 일인출(三神一體一人出): 『격암 은비가』

가짜 구세주가 여기저기서 출현하여 미혹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은 치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세주가 출현하시게끔 계획을 짜 놓으셨다. 그 구체적이고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세주의 출현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의 출현이 필연적인 과제이다.

격암유록 은비가에는 삼진신중일인출(三眞神中一人出) 삼상일체일인출(三聖一體一人出)

즉 세분 하나님이 나오시어 한 분 하나님으로 출현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다. 한 분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분이 구세주이다.

一人鷄龍開國之臣 十人生產一男一女  
일인계룡개국지신 십인생산일남일여  
辰巳真人 男女不辨牛性在野  
진사진인 남녀불변우성재야  
非山非野仁富之間聖之出世  
비산비야인부지간성지출세  
『無用出世智將(무용출세지장)』

“한 사람의 하늘나라를 개국하기 위하여 공을 이루는 신하가 와서 십인(十人) 즉 하늘사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진사의인으로 키운다. 남녀 모두 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산도 아니요 들도 아닌 인천과 부천사이에서 나타나신다.”

한 분이 나타나서 일남일녀를 키운다는 예언이다. 역시 세 분의 의인 진사성인이 출현함을 말하고 있다.

#### 2) 삼위일체: 묵시록 3장 21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갑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스가랴 4:11)”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한 갑람나무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세 분의 갑람나무 의인을 말하고 있는데 삼신(三神)으로 출현함을 말하고 있다.



정읍 보천교(普天敎)의 십일전(十一殿)을 옮겨지은 조계사 대웅전에 이자삼점(伊字三點...)

“이기는 자는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도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게 하여주리라(묵3:21)”라고 기록하여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오시어 일체를 이루어 완성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완성되시어 나오시는 분이 구세주이다.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15:45)”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처음 사람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저 마귀 사람이 된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둘째 아담)’은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출현하신 구세주를 말한다.

세 분 하나님은 ‘하나님\*아담\*해와’인데 에덴에서 실패한 아담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을 다시 찾으시어 승리한 하나님으로 출현하신다. 잃었던 아담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을 차례로 승

리하신 하나님으로 찾는 과정이 구세주 출현 과정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아담하나님에게로 합일되어 일인출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구세주이시다.

#### 3) 삼존불일체: 이자삼점(伊字三點)

불경에는 더욱 자세히 위의 성경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我今當令一切衆生及我子四部之衆  
아금당영일체중생급아자사부지중  
悉皆安住秘密藏中 我亦復當安住是  
실개안주비밀장중 아역복당안주시  
中人於涅槃何等名爲秘密之藏  
중입어열반아등명위비밀지장  
猶如伊字三點若竝則不成伊縱亦不成如  
유어이자삼점약병즉불성어중역불성어  
摩醯首羅面上三目 乃得成伊三點若別  
마혜수라면상삼목 내득성이삼점약별  
亦不得成我亦如是解脫之法如來之身  
역불득성아역여시 해탈지법여래지신  
摩訶般若 三法各異亦非涅槃我今  
마하반야 삼법각이역비열반아금  
如是安住三法爲衆生故名入涅槃  
여시안주삼법위중생고명입열반  
〈대반열반경2권 수명품1-2〉

## 세 분 부처님 중에서 한 분은 여인으로 나오신다

보충 설명: 석가여래는 자신과 모든 중생들을 비밀장에 안주케 하겠다고 했는데 이 비밀장은 이자삼점이라고 하였다. 이 이자삼점은 세 분의 부처가 한 몸을 이루고 나온 생미륵불을 말한다. 세 부처가 함께 있으면 이자삼점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마혜수라왕의 얼굴에 눈이 셋이 있는 것 같이 세 분의 부처가 한 몸에 합일되어 일인출 되어야 이자삼점을 이룬 생미륵불이 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세 분이 동시에 나와서 동시에 움직여도 이자삼점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고로 해탈지법도 여래의 몸도 마하반야도 세 법(三法)이 각기 나뉘어져 있음으로 열반이 아닌 것이다. 세 분은 차례로 출현하여 차례로 합일되면서 삼신일체일인출(三神一體一人出) 되어야 생미륵불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 이자삼점(伊字三點)의 해설:

중국 하남성 노씨현(盧氏縣)에는 웅이산(熊

耳山)이라는 산이 있다. 이 산에서 물이 흘러 이양강(伊陽江)을 이룬 후에 낙양강(洛陽江)을 거쳐 낙수(落水)로 흘러든다. 여기에 이양강, 낙양강, 낙수가 삼점에 해당된다.

이 삼점이 곧 세 분의 부처님인 하나님을 말한다. 첫번째 스승에 의해서 두번째 부처가 나오고 두번째 스승에 의해서 세번째 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이 세번째 출현하신 부처님에게로 먼저 나오신 스승격인 부처님이 합일되어 일인출 되시니 이분이 생미륵불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마혜수라왕의 얼굴에 눈이 셋이 있는 것처럼 한분에게 세 분의 부처님이 합일되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절에 가면 (..) 표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자삼점(伊字三點)을 표시한 것이다.

다음의 중입아함경을 보면 이 삼법(三法)이 되는 세분 부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有三人世人所應供養 云何爲三 如來至  
유삼인세인소응공양 운하위삼여래지  
眞正等覺 不伏者伏未得解脫者  
진정등각 불복자복미득해탈자  
令得解脫最尊第一天中最高 云何爲  
령득해탈최존제일 천인중최고 운하위  
三一者女人覆則妙露則不妙  
삼일자여인복즉묘로즉불묘  
〈增一阿含經 12卷 三供養品 22〉

해설 : 세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높이 받들어 공양하는 바이다. 어찌하여 셋이 되는가? 여래의 최상의 대각을 이루심이다. 조복받지 못하던 자에게 조복을 받고 해탈을 얻지 못한 자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한다. 가장 존귀하며 제일이시며 하늘과 사람 가운데 최고로 높다. 무엇이 셋이 되느냐? 한 분은 여인이 된다. 가린 즉 묘하고 드러난 즉 묘하지 않다.

상세 설명: 이 불경은 위에서 밝힌 이자삼점(伊字三點)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삼법(三法)의 주인공인 세 분의 부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다. 이 세 분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이 높이 받들어 공양하는 분들로서 이 세 분의 부처님은 하늘과 사람 가운데 최고로 높은 분들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놀라운 내용은 세 분 부처님 중에서 한 분은 여인으로 나오신다고 적은 것이다. 이분들은 조복을 받지 못하던 자에게 조복을 받게 하며 해탈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해탈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불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자삼점(伊字三點)의 원리 즉 삼성일체일인출(三聖一體一人出)의 원리로 출현하시는 미륵부처 즉 구세주의 출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생미륵불이며 구세주의 존재를 찾

으려면 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 분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가 되는 것이다. 세 분의 주인공이 출현하시는데 그 세 분의 주인공 중에서 한 분은 여인으로 출현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확한 공식 속에서 삼신일체(三神一體)로 이루시어 나오신 분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이자삼점(伊字三點)의 귀중성을 항상 잊지 말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수도승들에게 벽에 써 붙여 놓고 염불처럼 외우게 한 문구가 있다. 그 문구를 소개한다.

行住坐臥夢中一念不失伊字(행주좌와몽중일념불실이자) “행하거나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꿈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이자(伊字)를 잊지마라!” 이 말은 이자삼점 즉 삼신일체로 출현하실 생미륵불을 항상 잊지를 말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이다.\*

#### 2편에 이어서

## 산하의 큰 운수가 이 도에 들어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다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1503-1566)의 예지력이 대단하여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에 회자되곤 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고려의 장엄을 예견한 도산국사나 이씨 왕조가 도래함을 알리는 비결 등등 율곡 선생의 십만 양병설, 토정 이지함 선생의 임진왜란 예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거북선 건조 후 시험함포 사격을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인 1592년 4월 12일 완수하였다는 기록 등등 예지력을 지닌 인물들이 역사상 종종 발견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극구의 선생이 저술한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에도 신비한 일화가 제법 실려 있지만 아사로 취급받는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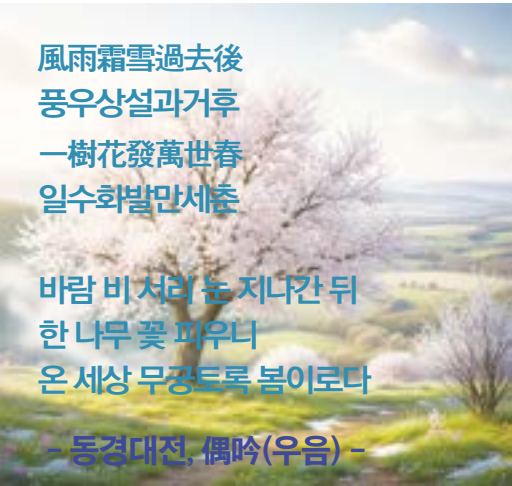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격암格庵 남사고南師古(1509-1571) 선생이 남긴 격암유록(남사고비결-원본은 없고 1944년 충남 서산에서 필사본을 발견, 그 필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현재 보관 중)이 보관된 이유는 그 가 실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학자로서 신망이 있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격암유록에 나타난 여러 예언이 적중했고 우

리 시대의 예언가 탄허 스님(1913-1983)의 예언 적중 사례(naver 검색창 참조) 등등은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차후에 『탄허학』과 『밀란코비치 이론Milankovitch cycle』을 서술합니다.

다만 남사고 선생이 저술하였다는 격암유록은 필사본으로 그리고 일제의 패망이 예상되는 시기인 1944년에 필사본으로 발견되었다는 것도 그러하고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제3자의 첨삭이 반드시 있었다고 100% 확실합니다. 다만 이인異人으로 적중된 많은 예언 중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예언은 올해 2025년(을사년) 음력 9월에 분단된 남북이 통합된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입니다. 『제자들이 분단된 남북이 언제 통합되느냐?』라고 문의하자 은유적 표현으로 대답하셨습니다. 『統合之年何時(통합지년하시) 龍蛇赤狗喜月也(용사적구희월야) 白衣民族(백의민족) 生之年(생지년)』 통일이 아니고 통합으로 대답하였다 하니 APEC회의를 예견한 것은 아닐 것이고 과연 남북통일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龍蛇赤狗喜月也(용사적구희월야)라는 문구



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리 식으로 헛갈리는 문구文句입니다.

세상사 및 인간사에 운運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지? 그 운이란 것이 대체 무엇인지?

동경대전은 수운선생의 법설을 제2대 교조 해월선생이 조선정부의 눈을 피해 1880년 강원도 인제에서 목할자본(목판본이 아님)으로 처음 간행했으므로 제3자의 첨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후 1883년(계미간췌未版)에도 간행했습니다.

수운 선생은 그가 남긴 가사 8편에서 조선朝鮮의 운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으며 그 운이 아주 나쁘다. 어쩔 수 없는 나쁜 운이 도래한다는 것을 설교했으며 안심가安心歌에서는 자신이 동학으로 인해 참형을 당하지만 훗날 자신의 동상이 세워짐을 예지했었습니다. (송백松柏같은 이 내 절개節概 금석金石으로 세울 줄을 세상사람 누가 알지)

영원한 강대국이 없듯이 개인의 운명, 생노병사生老病死 또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일종의 자연법칙입니다. 이제 그 운이 한반도로 도래함을 알리는 여러 징조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K-POP, K-뷰티, K-푸드, K-Culture문화 전파 등)

수운 선생은 탄歎 도유심급道憂心急 편에서 제자들의 조급한 마음 즉 큰 운이 빨리 도래하기를 기원하며 조급해 하는 제자들에게 『때는 그 때가 있으니 마음을 조급히 가지지 말라. 산하의 큰 운수가 이 도에 들어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다』라고 했으며 ‘동학이 나아가는 앞길에 서학이 가로막고 있다’

라고 화결사에서 은유적으로 읊었습니다. (동산속등 명명해 東山欲登 明明兮 서봉하사 차차로 西峯何事 遮遮路)※ (다음호에 계속)

포천시 왕방산 아래 연암중앙도서관에서 2025년(乙巳年) 10월 고문서古文書 연구가 김현동 金現洞✉unixkys@naver.com

#### 현동의 동학(東學) 이야기

필자 소개: 김현동金炫東, 개명 전 이름: 김운익) 선생은 1953년 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어일본학을 전공했으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55기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대 초반에 육사 32기(1972년 입학)로 합격하였으나 병고로 한 달 만에 자퇴하고 몸을 추스릴 겸 김씨 본관의 경주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르신 한학자(漢學者)께서 동경대전(東經大全)을 권하시기에 그때부터 동학(東學)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필자는 포천에서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뜻이 한류와 더불어 전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1세기에 걸맞은 동학(東學)의 대부흥을 위해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